



환호 ... 탄식 ... 안타까운 붉은 함성

17일 오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2010 남아공월드컵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경기를 지켜보던 시민들이 0-2로 뒤지던 상황에서 터진 이청용의 만회골에 기뻐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국팀의 연속 실점에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있는 시민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오늘 패배 나이지리아전 보약될 것”

■ 허정무 감독 일문일답

“오늘 선수들이 열심히 싸웠지만 경기 흐름을 타지 못한 게 패인이다. 염기훈이 찬스에서 넣어주었으면 결정적인 분위기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었는데 기회를 날렸다. 나이지리아와 경기에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

허정무 축구대표팀 감독은 17일(한국시각) 아르헨티나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B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1-4 패배를 당하고 나서 다소 무거운 표정으로 기자회견에 나섰다. 다음은 허정무 감독과 일문일답.

- 예상하지 못한 점수다.
- 나 역시 예상하지 못한 점수 차이만 따

자막 경기에서 모든 게 결정될 것이다.
- 메시지를 충분히 대비했는데 막지 못한 이유는.
- 실제로 전반에 실점한 두 골은 메시에게 나온 것은 아니다. 우리 자체의 실수다. 후반에 실점하지 않고 갔다면 메시지를 봉쇄하려는 작전을 쓰려고 했는데 우리가 실점을 만회하려고 간접적으로 막다 보니 완전히 봉쇄를 못했다.
- 마라도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다.
- 경기 도중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몸싸움에 대해 우리 벤치에 격양된 제스처를 해 자제해달라고 했다.
- 오범석이 실수가 있었다. 차두리 대신 넣은 이유는.
- 오범석과 차두리를 직접적으로 비교한

다는 것보다는 서로 장단점이 있다. 우리가 그리스와 1차전에서 이겼지만 그때 차두리의 플레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오범석은 오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 수비는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 나이지리아와 경기가 우리에게 중요하다. 16강 진출에 결정적인 경기다. 나름대로 분석해 어떻게 나갈지 준비하겠다.
- 그리스와 1차전보고 놀랐는데. 오늘은 그렇지 못했다.
- 오늘 아르헨티나는 경기를 잘했고 우리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아르헨티나는 행운의 골도 있었고 우리는 찬스에서 넣을 골을 못 넣었다. 아르헨티나는 뛰어난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다. 오늘 패배가 나이지리아와 다음 경기에 보약이 될 것이다. /연합뉴스

태극전사들 “빨리잊자”

아르헨티나와 격돌에서 완패를 당한 태극전사들은 16강 진출 여부를 가를 나이지리아와 일전을 위해 나쁜 기억은 빨리 잊자며 분위기를 추슬렀다.
태극전사들도 “빨리 잊자”고 입을 모았다.
선수를 말로는 허정무 감독 역시 경기 후 라커룸에서 “오늘 경기는 다 털어 버리고 나이지리아와 경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자”며 분위기가 가라앉는 것을 막으려 했다.

주장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은 경기 후 “라커룸 분위기는 좋지 않았지만 빨리 잊고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에게 아직 16강 진출의 희망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 대표팀의 유일한 득점을 올린 이청용(불란)도 “16강 가는 데 크게 지장은 없을 것이다. 나이지리아는 충분히 해 볼만하다. 한국도 웃고 우리 선수들도 웃게 될 것”이라고 답답하게 새로운 각오를 드러냈다.

다.
베테랑 수비수 이영표(알 힐랄)는 “아직 월드컵이 끝나지 않았다. 어차피 그리스 및 나이지리아와 경기에서 승리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서 “우리가 강팀이고 16강 진출의 자격이 있는 팀이라면 오늘처럼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었을 때 정신적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빨리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자고 다짐했다.
이영표는 이날 자책골로 아르헨티나에 선제골을 내준 박주영(모나코)을 위해서도 “주영이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실점한 것이다. 이 일로 고민하지 말아야 한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연합뉴스

나이지리아전 비겨도 진출 가능 패배면 골득실 뒤져 무조건 탈락

■ 한국 16강 경우의 수

한국의 16강 가능성은?
한국은 17일(이하 한국시각) 2010 남아공 월드컵 아르헨티나와 경기서 1-4로 대패했다. 그러나 16강 가능성은 여전히 높게 점쳐지고 있다. 그리스가 이어 열린 경기서 나이지리아에 2-1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이다.
17일 경기 후 B조 순위는 아르헨티나가 승점 6점으로 1위이고 한국이 3점으로 2위에 올라 있다. 그리스 역시 승점 3점이지만 다득점에서 한국에 뒤져 3위에 랭크됐다.
월드컵 조별 순위는 승점과 득실차, 다득점 순서로 가려지게 된다. 한국은 2경기서 3골을 넣어 2골을 넣은 그리스에 다득점에서 앞서 있다.
마지막 경기까지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한다. 하지만 강호 아르헨티나와 상대해야 하는 그리스에 비해 한국이 조금은 나은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가 아르헨티나에 이길 경우 가장 안 좋은 케이스다. 한국이 나이지리아를 꺾더라도 득실차와 다득점을 꺾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단 승리와 중요하지만 많은 득점을 올리며 이기는 것이 필요해진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역시 그리스전서 패배 경우 3점이 2승1패를

이루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다. 득실차나 다득점에서 앞서 크게 앞서있다고는 해도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리스가 아르헨티나와 비길 경우 한국은 나이지리아와 비기거나 16강에 오를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현재 팀 순위가 그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가 아르헨티나와 많은 득점을 주고 받으며 비기지만 않으면 된다. 여전히 다득점에서 1점을 앞서있는 한국이 유리하다.
▲그리스가 아르헨티나에 패할 경우 한국은 이 경우에도 무승부 이상을 거둬야 한다. 그리스, 나이지리아와 함께 1승2패가 되며 경우의 수를 따질 수 있다. 그러나 득실차에서 나이지리아에 뒤지게 된다. 현재 나이지리아는 -2, 한국은 -1이다. 그러나 0-1로라도 패하게 되면 나이지리아는 -1, 한국이 -2가 된다. 때문에 나이지리아가 16강에 올라간다.
결과적으로 한국 입장에선 그리스가 나이지리아에 2-1로 이긴 것이 나쁠 것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나이지리아가 그리스전서 선수 퇴장과 잇단 부상으로 어려움을 놓게 됐다. 한국이 최종전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놓였다고 볼 수 있다.

분할합병공고
(채권자의 및 주권채수권 공고)
주식회사 신영기업 (이하 "신" 이라 함)과 주식회사 영진기업(이하 "영" 이라 함)은 2010년 6월 18일 자로 신, 영 2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신"의 종가사상 부채를 영에게 그 부담 전액으로 "영"과 영진기업으로 100% 존속하며, 그에 수반하여 "영"의 자산의 50,000원의 주식 41,000주, 1,000주, 500주, 100주, 50주, 20주에 대하여 "영"의 대금 10,000원의 주식 41,000주, 1,000주, 500주, 100주, 50주, 20주에 대하여 "영"이 그 주식을 제공받는다. 이 경우 신, 영 2사의 자산, 채권, 채무 외 기타 재산은 영진기업으로 양행하고, "영"의 승인은 재산 이외의 것에 대하여는 영진기업에 부담되지 아니 함으로 권리의 귀속은 영진기업에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 하고, 영진기업은 영진기업의 1개월 내에 신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또한 신 회사의 주주 명부에 주권채 채권사기 처리와 이에 공표함
2010년 06월 18일
"신" 소 제 지: 포항시 남구 대강동 909-3
상 호: 주식회사 신영기업
대표이사: 박재영
"영" 소 제 지: 정리남도 구례군 동천면 월전리 992
상 호: 주식회사 영진기업
대표이사: 김경호

회사분할, 주권채수권 공고
남해종합건설(주)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상에서 규정하는 회사분할절차에 따라 주권채수권채를 분할하여 가령 안전건설주식회사 분할합병, 남해종합건설(주)는 존속하기로 하였고, 영 회사분할에 의하여 지분금액 500,000,000원(500,000,000원) 감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주주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고, 이의관계인은 이 공고일자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의결사항에 이의가 제기하지 아니하면, 영 회사에 주권채 채권사기 처리와 이에 공표함
2010. 6. 17.
남해종합건설주식회사
공주광역시 공주공신동 76-1
대표이사 김형석

상속한정승인공고
광주지방법원 제1부
사건번호: 2010나단 288
사 말 지: 김정남(410420-1667528)
취족주소: 목포시 산정동 1063-203
등록기준지: 목포시 산정동 1063
위 당 권변의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금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 공 고 인: 임동자, 권성원, 권영환, 권영환
• 한정승인승인일: 2010년 6월 10일
• 공고기간: 2010.06.18 ~ 2010.08.17
• 신고 처: 목포시 산정동 1063
임 동 자 (010-837-8774)

현대공인중개사
T. 062)371-1900, 010-2006-0115
사무 무리병원에서 50m지점 www.85858949.co.kr

토지 매매

- ▶ 광산구 수원동 자연녹지 매매
● 6,571㎡(1,990평) 매대가 14억 5천만원, 교회, 요양원, 식당, 공장 적합, 유아원, 대형차 진입 가능
- ▶ 마일동 준공지역
● 골목연속지 인근, 대로변, 2780㎡(841평) 매대가 22억 원
- ▶ 광동 강도변 대지 매매
● 신촌동 1,114㎡(337평) 매대가 6억 7천만원
개별공시지가 6억, 대출 3억~3억5천만원 가능
준주거지역, 전시장, 카센터, 시육적합
- ▶ 마북동 대로변 토지 매매
● 지하철 사형실 뒤편 도로변, 생선농지 860㎡(260평) 매대가 7억 8천만원
- ▶ 벽진동 학교, 광정부지
● 벽진동 697㎡(211평) 일반주거지역, 대지, 매대가 2억4천만원
- ▶ 광산구 1층 일반주거지역 매매
● 신촌동 1,744㎡(528평) 매대가 1억8천만원
● 박호동 646㎡(196평), 648㎡(196평)매대가 각각 1억 2천만원

나주남평 토지 매매

- 풍림리, 계획관리지역, 2차선 도로변, 잡종지 2951㎡(893평) 공장, 학교 등 용도 다양 매대가 2억9천만원

건물 매매

- ▶ 수익성 좋은 임대상가 매매
● 성촌동 대지 278.5㎡(84.2평)/건평 662㎡(200평)
1층상가 2층, 3층, 4층, 원룸, 투룸, 매대가 7억9천만원
보증금 8천만원 월 700만원 공실없음
- ▶ 상가 및 목욕탕 건물 매매
● 성촌동 대지 367㎡(110평)/건평 1233㎡(373평)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2~3층, 목욕탕(직영)
상가 임대료 보증금 1억9천만원 월 340만원
대출 4억 8천만원 매대가 12억 5천만원
- ▶ 공영 학교 건물 매매
● 광산구 우신동 대지 2975㎡(900평) / 건평 594.5㎡(180평)
비행장 인근, 대형차 진입 가능, 매대가 7억 8천만원

믿음 공인중개사
T. 971-4911 H.011-627-0876
(첨단 세종문고 건너 쌍둥이 빌딩 1층)

■ 첨단지구
상가 임대: 60m 대로변 2,3층 450평(분할가능)
[권장업종: 병원, 사무실, 학원 기타]
첨단지역 번화가이며 1층에 옷매장들이 형성되어 있어 유동인구가 많아 병원, 학원, 사무실용도로 적합함
450평(조립,제조 회사 가능) 주차대수 30대
■ 공장: 하남공단, 평동공단, 첨단산단 매매, 임대 전문, 매매, 임대 다수 보유하고 있음

■ 첨단:인근지역
진곡, 임곡, 동아면, 남면, 진원면, 대치, 수북면 (전원주택, 전원주택지, 생선, 자연녹지 있음)

■ 첨단지구: 상업지역토지, 모텔부지, 상가건물, 모텔, 무인텔, 매도(다수보유)

■ 첨단지구: 상가임대, 음식점, 음악물, 레스토랑(다수보유), 1층번화가; (옷매장 약 60평 임대)

첨단지역에서 오랜 전통있는 저회 업소에 방문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찰교육의 명문

김재규
경찰학원의
함박신화는
계속될래!

원장, 경찰학 박사 김재규

한번 등록으로 합격할 때까지
합격회원제(5년) | 1년 회원제 | 6개월 회원제
이론중합반 | 문제풀이반

최고의 사설
KPA 실용하우스 | KPA 독서실 | 무료 동영상 |
무료 지습실 | 편안한 휴게실 | 체력단련실

광주김재규경찰학원
www.kpa.co.kr | 062)236-3112 | 전일하고 후문 앞

최고 상권 건물 매매

**대단위 APT 단지 인접
동림지구 최신택 건물**

-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 대지 632.9㎡, 건물 2,289.09㎡
- 가격 상당후 결정

월산동 외곽도로변
지상 3층 건물매매
· 대지 374.9㎡
· 건물 299㎡

문의전화 011) 607-5629